

日本靈異記의 觀音說話攷

魯 成 煥

日語日文學科

(1982, 6. 30 결수)

<要 旨>

佛敎의 諸佛菩薩信仰 중에서 一般庶民들이 가장 親密感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역시 觀世音菩薩에 對한 信仰일 것이다.

本稿는 現實苦解脫과 淨土往生의 引導라는 本來의 性格을 所持하고 있는 觀世音이 日本最初의 佛敎說話集인 日本靈異記에 있어서 어떠한 形態로 受用되고 反映되어 있는지를 究明해본 것이다.

資料로서는 興福寺本과 眞福寺本을 底本으로 하여 誤脫을 補訂하여 만든 中田祝夫의 校注・譯『日本靈異記』를 사용했다.

日本靈異記의 觀音說話攷

魯 成 煥

日語日文學科

(1982, 6. 30 결수)

<要 旨>

佛敎의 諸佛菩薩信仰の中で一般庶民らがもっとも親しく感じられるのはやはり觀世音菩薩に對した信仰であろう。

本稿は現實苦解脫と淨土往生への引導と言う本來の性格を持っている觀世音が日本最初の佛敎說話集である日本靈異記においていかなる姿として受用され反映しているのかを究明して見たのである。

資料としては興福寺本と眞福寺本を底本とし誤脫を補訂して本文を定めた中田祝夫の校注・譯『日本靈異記』を用いた。

I. 緒 言

觀世音은 모든 現實的인 災難과 苦厄으로 부터 衆生을 救濟해주는 大慈悲者로서 世上을 教化하기 위해서는 衆生の 各者 根機에 맞추어 多樣한 形態로 化現하는 施無畏者이다.

이러한 觀音은 勢至菩薩과 함께 阿彌陀佛의 補處菩薩로서 一般衆生으로 하여금 西方淨土에 往生할 수 있도록 引導하는 大慈大悲를 根本誓願으로 하는 大悲聖者인 것이다.

이러한 觀音信仰이 日本으로 傳來된 것은 대략 白風期(673年頃)로 想定되고 있으며, 日本靈異記의

觀音 說話의 成立時期인 奈良時代에 觀音信仰이 일어나 盛行하였는가에 對하여는 東大寺 正創院의 文書에 觀音像의 造像과 七十種에 가까운 觀音經을 讀誦, 書寫했다는 事實로서도 넉넉히 짐작되는 바이다.

本稿에서는 이와 같은 觀世音菩薩의 性格을 日本最古의 佛敎說話集인 日本靈異記를 通하여 살펴보고자한다.

특히 靈異記의 著者인 景戒의 觀音信仰을 中心으로 靈異記에 있어서 觀音說話의 必要性에 關해 究明하고 나아가 靈異記觀音이 가지는 一般民衆에 對한 救濟論理에 主眼點을 두고 靈異記說話에 나타난 觀音의 特殊性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靈異記의 觀音說話에 對한 理解를 돕기 위하여 日本靈異記 所載의 觀音說話에 關聯된 地域과 救援을 받은 者의 身分 等を 時代順으로 概觀하여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번호	說話名	關連地名	被救援者身	年代
1	上卷 6話	興福寺	僧侶	598~628
2	上卷 17話	伊予國	兵士	660~662
3	上卷 18話	大和國	法華經持經者	未詳*
4	上卷 20話	延興寺	僧侶	"
5	上卷 31話	吉野山	修行者	724~749
6	中卷 34話	奈良	女孤兒	"
7	中卷 42話	奈良	貧女	758~764
8	下卷 3話	大安寺	僧侶	764~770
9	下卷 7話	武藏國	官吏	"
10	下卷 12話	奈良	盲人	"
11	下卷 13話	美作國	鑛夫	"
12	下卷 30話	紀伊	僧侶	781~806

II. 景戒의 叙述意識과 觀音信仰

日本靈異記에 수록된 觀音說話의 性格을 보다 正確하게 理解를 하기 위해서는 著者인 藥師寺의 沙弥景戒의 觀音說話의 叙述意識과 아울러 그의 觀音思想의 關係性에 對한 分析이 必要하다. 이와 같은 作業은 靈異記 觀音의 性格의 理解 뿐만 아니라 全體의인 靈異記의 研究에 있어서도 매우 主要한 役割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景戒의 觀音信仰을 中心으로 靈異記의 叙述動機를 살피 보기로 한다. 먼저 景戒의 身分의 特性을 推察하여 보면.

「延曆十六年十二月十七日, 男子を失い, 同十九年一月十二日, 二五兩日, 飼馬が斃死する」⁽¹⁾
「俗家に居て妻子を蓄へ」⁽²⁾

에서처럼 景戒는 妻子를 가진 帶妻僧侶이었으며 또한 私有財産도 多少있는 在俗生活을 營爲한 僧侶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靈異記를 漢文體로 記述하며 多樣하게 諸經典을 引用하고 있는 事實은

보면 그는 佛敎의 敎理에 關해 해박한 知識을 所持한 僧侶임에는 틀림 없다.

그리고 또한 上·中·下 各卷의 冒頭に 「諾樂右京藥師寺沙門景戒錄」이라는 記錄을 볼 수 있어 그의 身分은 具足戒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官度를 받지 않고 私的으로 僧侶가 된 私度僧 出身의 沙弥라는 事實도 아울러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自他意에 依한 것이었던 國家로부터 公認을 받지 못한 것이던 帶妻·沙弥라는 景戒의 身分的인 性格은 이미 内外的으로 엄격한 僧侶集團의 戒律問題와는 달리 禁欲의 部分에 對한 戒律이 除外된 外面相으로는 在俗生活과 大體 非戒律的이며, 世俗的인 그의 身分은 모든 것을 寬大히 受用해 주며 또한 苦痛으로 부터 解放시켜주는 大衆的인 觀音의 性格에 親密感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하여 景戒는 諸佛菩薩 中에서 觀音說話를 가장 많이 收錄한 理由도 바로 여기에 基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私度僧이라는 景戒의 身分은

「自度の師たりと雖も, 猶忍の心もて見よ, 隱身の聖人, 凡中に入るが故なり」⁽³⁾

에서처럼 自度·沙弥를 聖人의 化現이라고 볼 만큼 私度僧을 두둔하였으며

「沙弥は觀音の變化ならむ, 何を以ての故にとならば 未だ具足戒を受けざるを名けて沙弥とす。觀音も亦爾なり」⁽⁴⁾

라고 著者가 述懐하는 部分에서 밝히고 있듯이 沙弥의 乞食行을 觀音菩薩의 慈悲行이라고까지 승화시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景戒의 私度僧이라는 身分은 官寺의 大僧보다는 오히려 慈悲行을 몸소 實踐하는 私度·沙弥의 乞食業에 對하여 強한 同情心을 느꼈으며, 또한 藥師寺의 僧이라는 所屬은 元興寺, 大興寺 보다는 藥師寺를 옹호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大衆的인 景戒의 性格이 民衆에게 說世利益을 가져다 주는 救世觀音의 性格과 合致되어 觀音에 關한 說話를 가장 많이 構成하고 編纂했을

* 日本靈異記에 있어서 說話의 配列은 時代順序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2개의 說話의 年代는 660~724年으로 推定할 수 있다.

(1) 日本靈異記 下卷, 災與善表相先現而後其災善答波緣 第38. 話.

(2) Ibid., 第38話(下卷)

(3) Ibid. 下卷 33話, 刑罰賤沙弥乞食以現頓惡死報緣.

(4) Ibid. 下卷 38話.

것으로 思慮되는 것이다.

그리고 景戒가 觀音說話를 諸佛菩薩中 가장 많이 收錄한 또 한가지의 叙述動機는

「ここに諸樂の樂師寺の沙門景戒, つらつら世の人を厭るに, 才好くして厭なる行あり。利養をのぞみ, 財物に食ること, 磁石の鐵山を擧して, 鐵を殖ふよりも過ぎ, 他の分を頼む, 己が物を惜むこと, 流頭の果の粒をくだきて齧を啖むよりも甚だし」⁽⁵⁾

에서처럼 世情의 人心의 腐敗와 墮落을 거탄하였으며, 또한

「佛の涅槃したまひしより以來, 延暦六年歳の次り丁卯に迄るまご一千七百二十二年を遷たり。正像の二つを過ぎて末法に入れり」⁽⁶⁾

라고 하여 末世觀에 依한 不安을 述懐하며 因果應報의 論議를 말하고 있다. 이처럼 世情의 腐敗와 墮落 그리고 不安한 末法觀이 하나의 根本的인 계기가 되어 人心을 善導하고 危機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因果의 理, 즉, 等流果를 現在에 살고 있는 人間의 身邊에서 받는 淨식의 單純한 現報譚의 收錄이 不可避했던 것이다.

그러하여 靈異記에 收錄된 說話 역시 複雜한 修行의 結果가 아닌 佛法의 功德에 依해 災害를 免하고 福을 얻는 程度의 單純한 構成의 說話가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當時腐敗된 不安한 末法社會의 民衆을 善導하기 위해서는 複雜한 理論的인 佛敎의 修行보다는 現實生活을 中心으로 한 慈悲의 實踐을 強調한 現報譚이 더욱 切實했던 것이다.

이러한 性格을 보더라도 靈異記는 學問的인 僧侶를 對象으로 叙述했다기 보다는 一般民衆을 中心으로 構成 記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하여 景戒는 三論宗의 代表的인 學僧인 智光이 慈悲行을 實踐하는 行基를 시기하여 非難함으로써 焦熱地獄에 떨어져 苦痛을 받는 中卷 17話에서 보는바와 같이 虛無的이고 否定的인 三論의 觀點을 배척하고 民衆에게 實際的인 利益을 가져다주는 肯定的이며 質質的인 法相으로 志向하였던 것이다.

이 說話에서 景戒는 敎理面에서 對應을 이루는 法相과 三論을 對立시킨 結果, 三論의 代表格인 智光

이 自身의 잘못을 認定하고 懺悔했으며, 著者인 景戒가 「不思議光菩薩所說經」의 文句를 引用하여 他人을 시기하고 非難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說明하지만 結局 그것은 行基에 對한 智光의 敗北를 意味하는 同時에 法相宗에 對한 三論思想의 敗北를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觀音說話와 代表的인 大乘經典인 法華經에 關한 說話가 諸佛菩薩과 諸經典類에서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點과 難波에서 土木事業 等 많은 公益事業에 이바지한 行基에 關한 說話를 中卷에서 무릇 여섯 說話를 收錄할 만큼 行基에 對해서는 至大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點을 보더라도 景戒의 觀音說話의 最多收錄은 理論的인 敎理의 修行보다 實際的이며 大乘的인 菩薩道修行에 근거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靈異記에 있어서 觀音의 必要性은 當時 新興宗敎이었던 佛敎가 一般大衆에게 널리 浸透히 布敎되어 人心을 感化시키기 위한 方便으로서 一般庶民의 生活과 가장 密接한 信仰으로서 切實히 要求되었던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III. 日本靈異記觀音의 救濟論理

佛敎說話文學에 나타난 菩薩의 救濟化現의 論理는 觀音의 主要한 特性 중의 하나이다. 觀音世尊(Avalokiteśvara)은 고은 種類의 人間, 또는 初自然的인 存在의 모습으로 人間의 身邊에 나타난다.⁽⁷⁾

이러한 觀音은 또한 衆生에게 온갖 두려움이 없는 無畏心을 베푸는 施無畏者로서 世上을 敎化하는데 衆生의 根機에 맞추어 여러 가지 多樣한 形態의 救濟化現으로 나타난다.

日本靈異記의 觀音說話 總 15個說話 중에서 化現救濟에 關한 것이 半數가 넘는 7個라는 點을 미루어 보더라도 觀音의 化現救濟의 機能이 그렇거나 重要한 몫을 차지하는가를 알 수 있다.

먼저 이와 같은 救濟 또는 化現에 關聯된 觀音說話의 部分을 時代順으로 살펴보면,

上卷 6話, 淨蓮念觀音菩薩得現報緣

「忽其河邊橋壞, 無船過渡无由。居斷橋上, 心

(5) 日本靈異記 上卷의 序頭

(6) Ibid., 下卷의 序頭

(7) 黃濱江, 新羅佛敎說話研究 p. 65~66.

(8) 은덕용하, 佛敎辭典 p. 59.

念觀音。即時老翁乘舟迎述 同載共渡。渡竟之後 從舟下道，老公不見，其舟忽失。乃疑觀音應化也」

여기에서 觀音은 老翁으로 化現하여 高句麗에 留學은 老師行善을 無事히 데로 건너준다. 이 說話에서는 특히 上卷 17話와 더불어 韓半島의 政治의 狀況을 叙述하고 있어 눈길을 끌기 한다.

그리고 上卷 20話 僧用誦湯之新而與他作牛役之示奇表緣에서 觀音의 救濟는

「宮將問狀，請僧見之，面姿奇貴，身體 妹妙而添。宴息居於淨屋，召請給師音“如彼法師之容，不誤輸之持來。”等奉詔 持進之於宮。宮見之，皆觀音菩薩像也。彼師忽然不觀焉」

에서 보는 바와 같이 觀音은 僧侶로 化現하여 生前의 惡業으로 말미암아 死後 소(牛)로 태어난 延興寺의 僧인 惠勝을 質책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人間的이다.

그리고 中卷 17話 觀音銅像及鷺形示奇表緣에서 觀音의 化現은

定知，彼見鷺者，非現實鷺，觀音變化 更莫疑也」

에서 볼 수 있듯이 해오라기(鷺)로 나타나 自己自身이 궁지에 몰려 있는 位置를 敎示함으로써 自身을 救濟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中卷 34話 孤孃女憑敬觀音銅像示奇表得現報緣에서는

「所嗜歸家，如常將禮，入室而見，著使黑衣被銅像，爾適知之 觀音所示」

라고 한 것처럼 觀音은 이곳에 사는 裕福한 집의 乳母로 化現하여 궁핍한 生活를 營爲하 去는 孤兒인 가난한 女人을 돕는다. 이같은 貧女가 諸佛의 靈驗으로 福을 얻는 tema의 現報譚은 中卷 14話, 28話 42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同一한 觀音이 貧女를 助力한다는 型式의 說話는 中卷 34話뿐만 아니라 同卷 42話 極窮女憑敬千手觀音像願福分以得大福緣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說話에서는 觀音이 貧女의 여동생으로 化現하여 救濟하고 있다.

그리고 下卷 12話 二目盲男敬稱千手觀音日摩尼手以現得明眼緣에서 觀音은

「不知二人采云 “汝旣故，我二人治汝盲目”左 右各治了」

에서 처럼 化現하여 盲人에게 光明을 주는 二人의 救濟者로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下卷 13話 將寫法華經建願人斷內暗欠願力得全命緣에서 觀世音菩薩은 僧侶로 化現하여

「汝之妻子，供我飲食，雇吾勸救。汝復與愁故，發來之」

라고 한 뒤 坑속에 갇혀있는 人을 救濟하여 준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觀世音은 甚多 多樣한 種種相으로 現身하여 人間을 苦痛으로 부터 救濟해 주고 있는 것이다.

觀音이 民衆을 救授하는 理論的인 根據를 諸經典類에서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첫째, 妙法蓮華經의 觀世音菩薩普門品, 그리고 둘째, 觀無量壽經의 十六觀 가운데서 觀音觀은 들 수 있으며, 셋째로는 大方廣佛華嚴經 入法界品중의 觀自在菩薩 넷째, 十一面觀世音菩薩陀羅尼經과 千手千眼觀自在菩薩大悲心陀羅尼經 등의 密敎經典을 들 수 있겠고 다섯째로 娘娘神과 結合된 透子觀音과 馬郎婦觀音등이 바로 그것이다.⁽⁹⁾

그러나 日本靈異記의 觀音說話가 7C~8C 間, 奈良時代를 背景으로 展開되고 있다는 點을 감안하여 볼 때, 靈異記觀音의 救濟論理는 이미 그時代에 傳來되어 있었던 妙法蓮華經의 觀音經과 中卷 42話와 下卷 12話 및 下卷 30話에서 十一面, 千手觀音을 中心으로 하는 密敎的이며 現世利益的인 觀音信仰⁽¹⁰⁾을 根據로 展開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靈異記의 說話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694年 日本의 朝廷이 『金光明經』 百部를 書寫하여 諸國의 國衛에 보냈다⁽¹¹⁾는 歷史的 事實을 감안해 볼 때 必是 『金光明經』의 菩薩化現의 理論도 또한 靈異記觀音의 救濟論理에 多少影響을 주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以上과 같은 三種의 經典을 中心으로 靈異記觀音의 救濟的인 論理에 關하여 좀 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먼저 時空을 조절하여 그에 따라 適切하게 行動하고, 또한 그에 맞는 說法과 多樣한 身은 나타낸다고 했으며⁽¹²⁾ 또한 金光明經의 三身分別品에

(9) 安啓賢, 韓國人의 觀音信仰과 靈驗傳(韓國宗敎 第3輯 76) p. 109.

(10) 成田俊治, 日本における 觀音信仰의 諸形態(韓國宗敎 第4,5輯 80) p. 131.

(11) 中村元/笠原一男/金岡秀友 アジア佛敎史 日本編 I. p. 178.

(12) 大正新修大藏經, 三身分別品 p. 362. 「處所相應, 時相應, 行相應, 說法相應, 理種種身」

『是初佛身，隨衆生意，有多重故，現種種相 是故說多』라고 한 것처럼, 菩薩은 衆生の 思考가 多樣하므로, 이에 따라 化身의 相도 各種多樣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日本靈異記의 觀音이 僧侶, 老翁, 그리고 主人公의 여동생(妹) 및 富裕한 집의 乳母와 해오라기(鶯)等 化身의 樣相도 바로 이러한 理論의인 根據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說明할 수 있다.

그리고 法華經의 觀世音菩薩普門品에 觀世音은 佛身, 壁支佛, 聲聞, 梵王, 帝釋天, 自在天, 大自在天, 天大將軍, 毘沙門, 小王, 長者, 居士, 宰官, 婆羅門,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 長者, 居士, 宰官, 婆羅門의 婦人, 童男, 童女, 天, 龍, 夜叉, 乾闥婆, 阿修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伽, 執金剛神等三十三身으로 多樣한 應身으로 항상 衆生の 救濟에 從事하는 救濟의인 特色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觀世音菩薩은 羅什이 翻譯한 漢譯普門品에서는

「若有無量百千萬億衆生，受諸苦惱，聞是 觀世音菩薩 一心稱名，觀世音菩薩，即時觀其音聲 皆得解脫」

라고 했듯이 兵火, 疾病, 艱難 等 모든 現實의인 災難苦厄으로 부터 救濟해주는 大慈悲者⁽¹⁴⁾로서 一般庶民社會에서 信仰될 現實的인 基盤의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日本靈異記의 說話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首楞嚴經卷第六에서도 前述한 法華經의 것과 거의 大同小異한 內容의 觀音性格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中卷42話에서 볼 수 있는 千手觀音의 貧女에 對한 救濟理論은 二七面과 千手千眼을 가지고 一切의 衆生을 救濟한다는 千手千眼觀世音菩薩陀羅尼經에 準한 것이며, 또한 下卷12話에서 볼 수 있듯이 千手觀音이 盲人에 對한 救濟理論은 千手觀音이 火珠를 가지고 있는 손, 即 日摩尼手⁽¹⁵⁾에 對한 信仰으로서 日摩尼手를 稱誦하는 것은 千手千眼觀音經중에서 陀羅尼 部分을 되풀이 반복 讀誦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靈驗에 理論의인 根據를 둔 것이다.

그리고 下卷 30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慈悲·憤怒·大笑의 相을 한 十一面觀世音 또한 十一面觀世

音神呪經에 名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一切衆生의 病苦와 모든 障礙災怪 그리고 惡夢 等の 阿修羅道로부터 救濟할 수 있는 特徵을 지닌 菩薩인 것이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本靈異記觀音의 救濟理論은 景戒가 獨自의으로 創出한 理論의 救濟根據가 아닌 諸般觀音에 關한 經典에 그 理論의 根據를 두고 現世利益의인 除災來福의 活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超人間的인 靈異記觀音의 救濟의인 性格은 當時 社會의 矛盾과 不安에 허덕이고 있던 奈良人들에게 있어서는 死後 淨土往生을 引導해 주는 阿彌陀佛의 補處菩薩로서의 性格보다는 一般庶民들에게 親近感을 주는 現實性을 지닌 庶民의인 觀音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Ⅶ. 靈異記觀音의 特性

佛敎信仰의 全般에 걸쳐서 觀音菩薩이 차지하는 比重은 매우 크다. 特別 觀世音은 阿彌陀佛과 함께 佛敎에 있어서 現實苦解脫 및 希願祈求의 의 가장 代表의이며 理想的인 庶民佛敎 信仰의 形態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에도 모든 佛敎人들에게 많은 信奉을 받고 있다.⁽¹⁶⁾

이와 같은 觀音이 日本靈異記에 나타난 機能的인 特色은 아주 多樣하다.

이러한 點은 바로 靈異記의 觀音이 가지고 있는 獨特한 性格을 잘 代辯해 주고 있다 하겠다.

實로 多樣한 觀音의 性格을 靈異記의 說話를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女帝인 稻德天皇의 時代에 藥師寺의 동쪽 마을에 살고 있던 男子 盲人이 觀音에 歸依하여 日摩尼手를 熱心히 念誦하고 禮拜하여 實際로 得眼을 할 수 있었다」⁽¹⁷⁾

는 靈驗譚에서 觀音은 自身이 直接盲人을 治療하는 것이 아니라 正常的인 人間의 形態를 갖춘 그의 化身을 통하여 間接的으로 靈異를 나타낸다.

이처럼 觀音은 自己의 참모습인 自身의 應身은 現實的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人間의 疾病을 치료할 수 있는 醫術的인 面의 機能을 所持하고 있다.

(14) 金東旭, 新羅觀音信仰과 禱千手大悲歌 (서울대 文理大學報 第6卷) p. 120.

(15) 日精摩尼手라고도 함. 「摩尼」는 珠玉의 意味이며, 千眼과 火珠(光明)이라는 點이 結合되어 이 火珠가 盲人의 눈을 달콤히 치유해주는 것으로서, 日本에 있어서 盲人의 信仰으로 널리行하여졌던 것이다.

(16) 金煥泰, 新羅의 觀音思想(東大佛敎文化研究所 76) p. 63.

(17) 日本靈異記 下卷 12話, 二目盲男敬稱千手觀音日摩尼手以現得明眼緣.

그리고

「聖武天皇의 時代 吉野山에서 佛道를 담고 있던 男子가 觀音의 名號를 熱心히 부르며 禮拜한 功德으로 疾病을 治愈할 수 있는 醫術의 人 能力을 觀音으로 부터 부여 받아 從三位 粟田朝臣의 딸의 病을 낫게 함으로써, 幸福을 누릴 수가 있었다.」⁽¹⁸⁾

고 하는 靈驗說話에서도 볼 수 있듯이 觀音은 人間의 疾病은 물론 盲人에게 까지 光明을 줄 수 있을 만큼 警異의 으로 治病할 수 있는 萬能의 醫術의 人 側面의 機能을 所持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더 明確히 立證해 주고 있다.

또한 觀音은 病苦로 부터 解放시켜주는 醫術의 人 特性뿐만 아니라

「아후명의 子女를 네리고 궁핍한 살림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어떤 가난한 女人이 있었다. 가난에 시달리다 못해 그녀는 穴德寺의 千手觀音에 幸福을 빌었다. 그런데 一年도 채 가지 前에 추운 겨울 어느날 여동생이 찾아와 皮襪을 팔고고 돌아갔다. 피이하게 여긴 그녀가 그것을 열자 錢百貫이 들어 있었다. 事實은 觀音이 여동생으로 化現하여 갖다 준 돈이라는 것을 觀音像의 발에 말(馬)의 분노가 묻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立證하여 준다.」⁽¹⁹⁾

고 하는 靈驗說話에서와 같이 貧苦로 부터 救濟해주는 慈善의 人 菩薩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가난한 女人이 幸運(即 貧苦로부터 脫皮)을 얻는 說話는 이 說話에서 뿐만 아니라 中卷 14話 그리고 同卷 28話와 34話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는 點을 감안 할 때 衆生을 가난으로 부터 脫皮시켜주는 觀音의 救濟的인 役割은 本來 所有하고 있는 性格 가운데 主要한 機能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觀音은 貧苦와 病苦等 現世의 災厄으로 부터 解放시키는 救援力을 가진 大慈悲者로서의 機能을 닮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推古天皇의 時代 老師 行善이 高句麗에 留學했다. 그러나 그 國家의 滅亡과 함께 流浪하게 된다. 그러던 중 어느 江에 다다르자. 건너 갈 다리도 또한 배(舟)도 한척 없었다. 그래서 行善은 眞心으로 觀音을 念誦하였다. 그러자 홀

연히 한사람의 老人이 배를 타고 나타나 無事히 건네주고 사라졌다.」⁽²⁰⁾

이와 같이 觀音의 威力에 歸依하고 恭敬함으로써 危難으로부터 救援을 받는 說話는 毘難과 刑難을 免할 수 있었다는 下卷 7話와 무너진 檀梁의 鏡으로 부터 生命을 건지는 下卷 13話 및 戰亂時外國으로 逃竄되었다가 그 나라의 포로가 되었으나 觀音의 救援을 받아 本國으로 無事히 歸還할 수 있었다는 上卷 17話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처럼 觀音菩薩은 病苦와 貧苦 그리고 危難 등, 日常的 災厄으로 부터 衆生을 救濟하여 現世의 利益을 도모해 주는 救世의 性格을 지닌 菩薩인 것이다. 말하자면 觀世音은 衆生들의 現實的인 需求를 充足시켜주는 現世利益의 菩薩이라는 것이다.

普門品에

「善男子 若有無量百千萬億衆生, 受諸苦惱, 聞是觀世音菩薩, 一心稱名, 觀世音菩薩, 即時 觀其音聲 皆得解脫」

라고 한 것처럼 觀世音菩薩은 元來 世間의 衆生으로부터 救濟의 소리를 들으면 곧 즉시 求濟한다는 菩薩이다. 그래서 別名으로는 求世菩薩, 施無畏者 및 一切諸法의 觀察과 함께 衆生의 救濟도 自在롭게 한다는 意味에서 觀自在라고 稱하기도 한다.

그리고 觀音은 衆生을 救濟하는 것 以外의 自身이 不意의 災難에 逢着하였을 때

「時失火 燒其佛殿 彼菩薩木像 自所燒殿出二丈許 而伏無損」⁽²¹⁾

이처럼과 같이 佛殿에 火災가 發生했을 때 木佛觀音 自身이 安全處를 찾아 피난하는 靈異를 보이기도 한다.

이와 類似한 靈驗譚을 隣國인 新羅의 三國遺事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一夕寺門有火災, 閭里奔救, 升堂見像, 不知所在 視之已立在庭中矣」⁽²²⁾

이처럼 觀世音은 自己가 어떠한 危機에 처했을 경우라 할지라도 自身을 保護할 수 있는 特殊性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이다.

(18) 日本靈異記上卷31話, 毘難歸信觀音願福分以現得大福德緣.

(19) Ibid. 中卷42話, 樞窮女憑敬千手觀音像願福分以得大富緣.

(20) Ibid. 上卷 6話, 淨憑念觀音菩薩得現報緣.

(21) Ibid. 中卷 37話, 觀音木像不燒火難示威神力像.

(22) 三國遺事 卷 3, 三所觀音衆生寺.

그리고 觀世音菩薩은 도둑으로 부터 수모를 당하고 인כות에 버려졌을 때 自身이 처해있는 現實의 位置를 敎示하기도 한다.

「夏六月，彼邊有牧牛童男等，見之池中 有聊木頭，頭上居鷺，牧牛見彼居鷺，拾集磔塊，以之擲打，不避猶居，擲拍疲懈 下池取鷺，垂捋捕之，即入於水 見所居木，有金之指 取率上見 觀音銅像」⁽²³⁾

이같이 佛像이나 未完의 佛像이 事故나 도둑에게 잃어버려 自己의 存在의 位置를 상실해 버렸을 때 소려나 自身의 化現으로 自己의 位置를 敎示해 주는 說話는 中卷22話와 23話 그리고 同卷26話와 더불어 下卷 17話와 28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도둑에게 잃어버리는 佛像에 關한 說話가 위에서 言及한 中卷 17話를 中心으로 同卷 22話와 23話 그리고 26話이 成立時期인 聖武天皇(724~749) 時代에 集中的으로 構成되어 있는 點으로 보아 이러한 說話는 그 當時의 社會의 實相을 反映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해 볼 수 있을 것이다.

觀音은 또한 上卷31話에서

「南無 銅錢萬貫白米萬石好女多德施」

라고 自身의 幸福을 祈願하는 者에게 願대로 美貌의 女性과 結合하는데 커다란 決定的인 役割을 해주었으며 그리고 中卷 34話에서 처럼 가난한 女人에게 富를 가진 男性과 結合하여 幸福을 얻게 하는 重要한 役割의 機能을 또한 發揮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人間的인 欲求와 貧苦로 부터 脫彼시켜주는 靈異記觀音이지만 위에서 보는 것처럼 男女和合의 機能도 또한 배제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觀音의 男女和合의 형태를 取한 靈驗譚은 時代를 거슬러 내려와 平安時代의 設話集인 今昔物語集에 접어들면 더욱 더 그 性格이 뚜렷하여진다. 靈異記의 直接的인 影響을 받은 今昔物語集에 나타난 清水의 觀音에 對한 靈驗은 오히려 俗되리만치 人間의 欲求에 付合하여 심지어는 倫理的인 性格이 배제된 지나치게 現實의 利益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²⁴⁾

이같이 男女를 圓滿히 結束시켜주는 和合의 特性은 新羅의 說話인 三國遺事의 調信說話에서 보는 것처럼 옹지못한 그릇된 世俗的인 人間의 欲望을 꾀

을 通하여 깨달음의 길로 引導하는 新羅의 觀音⁽²⁵⁾과는 다른 日本觀音의 獨特한 特徵이라 할 수 있다 靈異記의 觀音說話에 나타난 觀音의 役割 및 特殊性을 以上에서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크게 나누어 共通된 靈異記觀音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日本靈異記에 나타난 觀世音菩薩은 人間에게 있어서 危難과 病苦 그리고 貧苦로 부터 救濟해주는 現世利益의인 性格의 菩薩이라는 點이다.

그리고 靈異記에 수록된 觀音說話가 특히 現世救濟譚을 주축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또한 男女和合이라는 觀音의 性格과 勢至菩薩과 더불어 阿彌陀佛의 補處菩薩로서 衆生을 淨土로 引導하는 淨土復生譚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點을 감안해 보더라도 靈異記의 觀音은 現實的인 傾向이 濃厚하다는 것을 如實히 立證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上卷31話와 中卷34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男女의 結合을 幸福되게 圓滿히 成事시키는 男女和合의 機能을 가졌다라는 點을 들 수 있겠다. 靈異記의 直接的인 影響을 받은 後代의 佛敎說話集인 今昔物語集의 清水觀音에서도 世俗的인 男女和合의 性格을 찾아 볼 수 있다는 點과 또한 當時隣國이었던 新羅의 觀音說話에서도 이와 같은 男女和合의 特性을 찾아 볼 수 없다는 點을 감안하더라도 靈異記의 男女和合의 特性은 日本觀音의 主要한 特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觀音과 그 救援의 形態를 結付시켜 보았을 때 日本靈異記에 나타난 觀音의 効驗이 念彼觀音力의 原則下에 이루어지는 形式을 取한 條件的인 救濟라는 點을 아울러 지적할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救援者가 그의 名號를 稱誦하고 그에게 禮拜, 恭敬, 祈願, 供養等 善根으로 얻게 되는 救濟이므로 엄격히 말한다면 佛典에 明示된 바와 같이 有緣救濟인 것이다. 이와 같이 日本靈異記에 있어서 觀音의 靈驗은 철저히 經典의 救濟理論에 立脚한 敎科書的이며, 被動的인 姿勢를 取하는 條件的인 救濟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 結 論

日本靈異記에 나타난 觀音의 性格을 以上에서 著

(23) 日本靈異記 中卷 17話, 音銅像及鷺形示奇表緣.

(24) 廣田徹. 清水觀音의 靈驗譚 p. 93 참조.

(25) 이러한 新羅觀音의 特性은 調信說話뿐만 아니라 遺事卷五, 廣德嚴莊說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者인 景岐의 叙述意識과 救濟理論의 根據가 되는 經典과의 關係等을 中心으로 靈異記觀音의 特殊性을 살피 보았다.

이러한 日本靈異記에 所載된 觀音說話의 特徵을 綜合하여 整理하던 다음과 같이 要略할 수 있다.

첫째, 景岐가 日本靈異記에 있어서 觀音說話를 其他 다른 諸佛菩薩에 關한 것보다도 가장 많이 收錄한 所以는 帶妻와 自度僧出身이라는 世俗的이며 非宗教的인 그의 身分이 民衆을 現實苦로 부터 救出하는 觀音의 性格理論에 合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當時 新興宗教이었던 佛敎가 一般大衆을 위해 널리 布敎되기 위해서는 理解하기 어려운 敎理的인 哲學思想보다는 民衆들에게 容易하게 受用될 수 있는 觀音信仰이 先決히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日本靈異記의 觀音이 衆生을 敎化시키고 또한 現實的인 苦難으로 부터 衆生을 救濟하는 理論的 根據는 著者인 景岐의 獨創的인 思考의 體系에 기 基因하는 것이 아니라, 諸觀音經典 特히 妙法蓮華經의 觀世音普門品에 立脚한 敎科書的인 救濟이다. 셋째, 日本靈異記의 觀音說話는 聯關된 地名에서도 알 수 있듯이 日本全體的으로 擴大된 信仰이라기 보다는 景岐의 生活的基盤이 된 奈良을 中心으로 展開되고 構成된 觀音信仰이라 하겠다.

셋째로는 日本靈異記에 觀世音은 淨土往生의 來世的信仰보다도 現實性을 重視한 現世利益的인 信仰을 強調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그러고 다섯째로 靈異記觀音의 救濟의 性格은 當時 隣接國家였던 新羅의 觀音과 같이 自發的으로 衆生의 救濟에 參與하는 것이 아니라 救濟者가 그의 名號를 稱誦하고 恭敬禮拜祈願함으로써 얻게 되는 條件的인 救濟라는 點을 아울러 지적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景岐, 日本靈異記(中田祝夫, 校注·譯 小學館·刊 1975).
- 中村元等, アジア佛敎史, 日本編, 飛鳥·奈良佛敎 (佼成出版社, 1972).
- 三木紀人等, 佛敎文學の古典上·下(有斐閣新書 1980)
- 井上光貞, 日本古代の國家と佛敎(岩波書店 1971).
- 黃淇江, 新羅佛敎說話研究(一志社 1980)
- 金煥泰, 新羅의 觀音思想, (東國大佛敎文化研究所 1976).
-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乙西文化社 1961)
- 增古和子, 「日本靈異記」にみる末法(佛敎文化研究 1969)
- 廣田徹, 清水觀音の靈驗譚(佛敎文學 1969)
- 金煥泰, 百濟의 觀音思想(馬韓·百濟文化第三輯)
- 安啓賢, 韓國人의 觀音信仰과 靈驗傳(韓國宗教 第 3輯 1976)
- 成田俊治, 日本にずける觀音信仰の諸形態(韓國宗教 第四, 五輯 1982)
- 大正新修大藏經, 新文豐出版公司 影印本 (國文學「解釋と鑑賞」) (至文堂 80.12)
-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六. 法華經(徐景洙 編著·中央新書 1980)
- 法華經新抄(趙明基 編著·三星美術文化財團 1976)
- 妙法蓮華經(亞成出版 79).
- 李相日, 變身說話의 類型分析과 原初思惟(成大, 大東文化研究院 1972).
- 林東周, 菩薩化現說話에 나타난 菩薩化現의 原理와 樣相(國際語文 82).
- 入部正純, 靈異記의 佛菩薩信仰(文學, 語學 1979.12)
- 田村圓澄, 古代朝鮮佛敎と日本佛敎(吉川弘文館 1979)
- 山根賢吉, 日本靈異記 と中世說話集(檀蔭國文學 1964).
- 一然, 三國遺事(民族文化推進會, 1973).